

## 알코올중독자의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 아 름  
(이화여자대학교)

전 종 설\*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중독자의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정신병원 6곳에 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남용으로 입원한 환자 총 151명이며, 다중회귀분석과 Baron&Kenny(1986)의 방식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자살시도 횟수는 일반성인의 자살 시도율과 비교하면 약 13배 높았고, 자살생각은 평생 유병률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울과 대인관계, 자살시도횟수, 음주심각성, 소득, 연령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에서 우울은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 위험성을 사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실천가들의 교육 및 훈련,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구축 등과 같은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요용어: 자살생각, 우울, 대인관계

\* 교신저자: 전종설, 이화여자대학교(jschun@ewha.ac.kr)

■ 투고일: 2014.1.20    ■ 수정일: 2014.2.27    ■ 게재확정일: 2014.3.24

## I. 서론

세계보건기구(2012)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자살 사망하고 있다(김정수·송인한, 2013). 특히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8년 연속 자살률 1위(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어 자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OECD Health Data를 살펴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회원 국가들의 평균 자살사망률보다 2.6배 높은 수치이며, 2006년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인 26.2명과 비교해도 7.1명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의 2011년 평균 자살률은 2006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 추세(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모두 이해해야만 그 순간에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김용해, 2011). 따라서 자살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자살은 단순히 한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최소 6명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만약 학교 및 직장에서 자살이 발생 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신종현, 2011). 따라서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용해(2011)는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정신의학적, 심리적, 의학적 측면에서 설명하였고, 그중 우울증, 조울병, 알코올사용장애 등과 같은 정신의학적 문제에 주목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25번 자살시도를 하였을 때 1번 자살에 성공하는 반면, 기분장애, 불안장애, 조현병(schizophrenia-spectrum disorder), 알코올중독 등과 같은 자살위험신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높은 자살성공률을 보인다(곽경필 외, 2004; 신종현, 2011; 전준희, 2013; Pompili et al., 2010). 또한 우리나라 자살형태를 살펴보면, 김광일(2002)은 자살을 병적자살과 사회문화적 자살로 나누었고, 그중 우울증,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알코올중독 등과 같은 병적자살이 우리나라 총 자살의 6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김광일, 2002). 따라서 상기 자살위험신호가 나타나면 자살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중 으뜸은 우울과 함께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나기천, 2009; Harris & Barraclough,

1997; Heriksson et al., 1993; Pompili et al., 2010)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캐나다 Center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알코올 1L는 자살가능성을 11~39% 증가시키며(나기천, 2009), 정신부검연구에서는 이보다 높은 25~50%가 알코올남용 또는 알코올의존으로 자살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제영모, 2004). 이처럼 음주가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알코올이 세로토닌 체계에 작용해서 자살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강은정 · 이수형, 2010; Brady, 2006; Pompili et al., 2010). 즉, 술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저하시켜 자살이나 자해행동을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성이, 2002).

그렇다면 음주행위를 반복하는 알코올중독자의 경우에는 자살위험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규태(2011)와 윤명숙(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시도력은 성인 자살시도율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reuss(2003)와 Sher(2005)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시도율은 약 40%, 5년 사이의 자살시도율은 4.5%, 자살사망률은 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일반인과 비교해보면 약 6배 정도 높은 자살위험률이라고 보고하였다(Harris et al., 1997). 따라서 이해국(2013)과 윤명숙(2011)은 음주문제를 줄이고, 음주문제를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핵심이라고 제언하였다.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소득, 자살시도경험, 가족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규태, 2011; 윤명숙, 2011; Zhang et al, 2013),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충동성, 스트레스, 자존감, 사회적 지지, 삶의 목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갑수 · 전영숙, 2012; 윤명숙 외, 2010; 손애리, 2010; 윤명숙, 2011; Harlow et al., 1986; Roy, 2000).

알코올중독자의 70% 이상이 Zung의 우울평정척도로 평가하였을 때 경고와 고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우행원, 1986; Goldman et al., 1973), Keeler et al(1978)의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74%가 우울로 진단되었다(이명은, 1998). 즉 우울과 음주문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강상경, 2010; 박현주, 2006), 알코올중독자의 상당수가 우울삽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울은 알코올중독자에게 있어서 삶의 질, 알코올 사용량,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저항의 정도, 치료자와의 관계 등 재발 및 회복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윤명숙 외, 2012; 최은정, 2013), 나아가서는 자살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보고된다(김갑숙·전영숙, 2012; Harlow et al, 1986). 이와 더불어 Joiner와 Rudd(2010)는 대인관계가 우울-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가족과 친구,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는 대인관계가 우울과 함께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상경, 2010; 윤명숙·김서현, 2012). 또한 Kleiman(2014)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대인관계, 자살생각이 직·간접 효과를 가졌고, 박병금(2009)과 추경진(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은 대인관계와 자살에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좌절된 대인관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 고위험군인 알코올중독자의 자살특성을 파악하기에는 국내 선행연구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박규태, 2011; 윤명숙, 2011; 윤명숙·최수연, 2012; 이현경·노성훈,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 남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 좌절된 대인관계, 음주심각성, 자살시도횟수 등을 파악하고, 알코올중독자의 우울이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알코올중독자의 자살

알코올중독은 일반사회에서 허용되는 영양적 또는 사회적 용도이상의 주류를 과량으로 계속해서 마시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만성적인 행동장애라고 정의된다(민성길, 2005). 상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자의 수는 약 15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권구영, 2002; 보건복지부, 2012), 정작 알코올사용장애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100,433명으로 추정환자의 약 6.5%에 불과하다(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는 다른 정신과 질환인 정신병적장애 25%, 기분장애 37.7%, 불안장애 25.1%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로서(이해국·이보혜, 2013) 많은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 정신병원에

대한 편견 등의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 역학조사(2011)에 따르면 알코올사용장애의 평생유병률은 13.4%로 불안장애와 기분장애 등과 비교했을 때 평생유병률이 가장 높은 정신질환 중 하나이며, 알코올중독은 치료받은 알코올중독자의 44.5~80.3%가 퇴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할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이 요구되는 질환이다(김정수 외, 1994). 즉, 알코올중독은 다른 정신과 질환과 비교했을 때 평생유병률 뿐 아니라 재발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및 예방 그리고 재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질병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권구영, 2002).

Maris 외(1992)의 자살행동모형에 따르면 음주는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2차 위험요인인 동시에 3차 촉발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약물치료, 신체적 건강,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보호요인이 있어도 음주와 우울삽화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결국에는 자살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육성필, 2002). 또한 Landberf(2009)는 알코올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였다. 첫째 급취(acute intoxication)로서 알코올 소비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충동적 행동을 강화시키지만,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켜서 자살경향이 촉발한다. 둘째 알코올의 장기적인 사용은 부정적인 정신건강과 사회와의 분리 등 자살을 조장하는 요인들을 초래한다(강은정 · 이수형, 2010).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에게도 음주는 심리적 변인의 강화요인으로 작용해서 자살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음주문제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자살생각이 0.2점 증가하는 수준으로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과 관련해서 음주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박규태, 2011; 윤명숙, 2011).

알코올중독과 자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한 Sher(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 우울 에피소드, 스트레스 사건, 대인관계의 어려움, 사회적지지 부족, 독거, 높은 충동성 및 공격성, 부정적 정서(affect), 절망, 심각한 알코올리즘, 다른 물질 남용, 심각한 신체질병, 자살을 암시하는 말(suicidal communication), 자살 시도력' 같은 주요한 특성이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 사망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살시도 횟수는 자살성공을 이끄는 가장 위험한 요인(박규태, 2011)으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38.7%가 자살시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자살시도율로 보고된 3%와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로서(윤명숙, 2011),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위험이 매우 높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종교, 신체질병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숙·전영숙, 2012; 손애리, 2010; 윤명숙 외, 2010; Harlow et al., 1986; Harris & Molock, 2000; Roy, 2003; Thompson et al., 2005).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18-74세 총인구의 자살생각 일년 유병률이 남자는 50-60대, 여자는 18-29세에 가장 높았고(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OECD 통계에서는 고령인구에서 자살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또한 지창현(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주관적인 건강상태, 우울증 등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박규태(2011)와 윤명숙(2011)의 연구에서는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가족력 유무 등이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인관계와 자살

대인관계 심리이론은 대인관계의 경험과 지각에 초점을 맞춰서 자살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한 자살이론이다(홍나미, 2011). 상기 이론을 제안한 Joiner(2005)는 자살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욕구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욕구의 결핍이 심리적 통증을 불러일으켜서 죽음의 욕구로 연결된다고 하였다(홍나미, 2011). 따라서 자살행동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는데, 이는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 ‘자살을 시도할 능력’이다(Van Orden et al., 2010). 이와 관련하여 Van Orden 외(2010)는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구조화할 수 있는 4가지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가설에는 자살욕구와 자살을 시도할 능력 사이의 인과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Van Orden 외(2010)의 대인관계 자살이론의 4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은 수동적 자살생각의 충분한 원인이다. 둘째,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지속적인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살욕구의 충분한 원인이다. 셋째, 자살욕구와 죽음에 대한 낮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자살욕구가 자살의도로 변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넷째, 심각한 자살행동(치명적 자살 시도 또는 치명적인 자살 시도 수준)은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짐스러움, 자살에 대한 낮은 두려움, 신체적 고통의 내성 증가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대인관계와 자살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Freedenthal 외(2011)의 연구결과 따르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자살생각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은정(2013)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와 자살생각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대인·가족·부부·부모갈등 - 자살생각 사이에서 대인관계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Orden et al(2008a)은 Simple Slope Analysis를 통해서 대인관계가 자살가능성을 임상적으로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동일한 자살가능성을 가진 집단군(10%~ 90%)이라 할지라도 대인관계문제를 10% 인식한 집단군보다는 대인관계문제를 90% 인식한 집단군에서 자살위험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노인(Cukrowicz et al., 2011), 대학생(Davidson et al., 2009; Lamis et al., 2011; Van Orden et al, 2008b), 청소년(하정미 외, 2010; 홍나미, 2011), 미국의 멕시코 여성(Garza & Pettit, 2010), 군인(Bryan et al., 2010; Bryan et al., 2012), 외상경험자(김보미·유성은, 2012)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대인관계가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You 외(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에도 대인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 3. 대인관계와 우울, 자살의 관계

대인관계문제는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핵심문제 중 하나이며, 동시에 우울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박송이·채규만, 2012; 현용호 외, 2001).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무기력감과 짐스러움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우울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성취를 이뤄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Jahn et al., 2011; Synder & Lopez, 2002). 또한 심리적 장애의 대부분은 사실상 대인관계 문제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을 유발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대인관계의 부적응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김보미·유성은, 2012; 윤현수, 2000; 현용호 외, 2001), Alloy와 Ahrens(1987)는 대인관계의 부적응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관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와 우울의 연관성을 살펴본 정연경(2009)은 대인관계 문제가 남학생 우울의 29.1%, 여학생 우울의 35.7%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지민(2010)과 추경진(2012)의 경로계수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Davidson 외(2011)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대인관계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고, 대인관계가 우울의 유의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부정적인 대인관계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김선하·김춘경, 2009; 박경, 2003), 더불어서 우울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Davidson et al., 2011).

주요우울장애는 자살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살의 대부분은 정서적 불안감으로 인해 생겨난다고 하였다(제용묘, 2004; 한만봉, 2011). 따라서 DSM-IV 우울증 진단기준에서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반복적인 자살사고 또는 시도, 자살을 자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민성길, 2005). 이와 관련해서 한만봉(2011)은 자살시도가 우울을 감소시키기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특히 처벌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즉, 많은 자살시도자들이 견딜 수 없는 우울 및 절망감과 싸우는 하나의 방편으로 자살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중 알코올중독자에게 있어서 우울은 가장 흔한 동반질환 중 하나로서 동시이환율이 14~78%에 이르며(Weissman et al., 1980), 더불어 우울증은 자살에 상승적이고 추가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가능성을 60~120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len & Gabbard, 2002).

우울과 자살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박현주(2006)는 알코올의존 환자의 1/4 내지 2/3이 일생동안 이차적인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onnqvist 외(1995)는 주요우울증 또는 알코올중독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집단보다는 우울삽화가 있는 알코올중독 집단에서 자살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알코올환자의 1/2 내지 3/4가 주요 우울삽화 시기에 자살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용묘, 2004). 그 외 선행연구들에서도 우울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였고(강상경, 2010; 김갑숙·전영숙, 2012; Harlow et al., 1986; Thompson et al., 2005), 그중 알코올중독자에게 공존 우울증상이 있으면 자살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히 감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제용묘, 2004).

우울과 사회불안은 가장 흔한 공존질환이며,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Davidson et al., 2011). 그중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우울은 자살 위험률을 높이



는 주요한 요인이며, 대인관계 역시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Joiner et al., 2009). 최근 국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우울, 사회불안, 연령 등과 함께 대인관계 메커니즘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때 대인관계 매커니즘으로 Joiner(2005)의 대인관계(interpersonal)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Davison et al., 2011; Hammen, 1991). 특히나 상실, 거절 등과 같은 외상적인 대인관계는 자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man & Jobes, 1991; Rich et al, 1991).

대인관계와 우울, 자살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Joiner와 Rudd(2010)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 및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자살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즉, 대인관계가 우울 및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O'Keefe 외(2013)의 연구에서도 우울,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모두가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을 각기 따로 보는 것보다는 소속감과 짐스러움을 통합하는 개념인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대인관계,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Kleiman et al. (2014)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과 대인관계와 자살생각에 직·간접 효과를 보였으며,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우울이 부부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 박병금(2009)은 다중요인교류모델에 기초하여 대인관계가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친구 및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아져 자살생각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와 우울, 자살생각은 직간접효과 뿐 아니라 총 효과에서 모두 유의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경진(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대인관계와 우울, 자살생각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인관계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효과에서 청소년과 노인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기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듯이 부정적인 대인관계는 우울 뿐 아니라 자살생각까지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청소년과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대인관계를 거쳐 자살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금, 2009; 추경진, 2012). 또한 우울과 대인관계, 자살문제는 다른 정신질환 및 일반인구와 비교했을 때 알코올중독자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 결과들처럼 알코올중독자들에게도 우울이 대인관계와 자살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진은 정신병원의 사회복지사와 접촉해서 알코올중독자의 수와 설문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신병원 내 '주치의' 또는 '치료팀'에서 설문조사를 수락한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정신병원 6곳을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 만18세 이상의 성인으로 DSM-IVTR에 의해 'Alcohol dependent' 또는 'Alcohol abuse'로 진단을 입원 환자, 2) 설문문항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기능이 되는 자, 3) 본 연구 설문조사에 동의하고, '주치의' 및 '치료팀'으로부터 설문조사에 참여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정신병원의 프로그램실에 연구대상자들을 모인 후, 본 연구진 또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배포, 작성, 수집하였다. 이때 공정한 입회자로 각 병원의 신부님 또는 목사님, 원무과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연구대상자는 각 병원의 사회복지사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그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알코올중독자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21일~11월 1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그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설문지 4부를 제외한 총 151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가.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외(1979)가 고안한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를 신민섭 외(199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SI는 3점 리커트 척도로 현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살생각 및 행동을 총 19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8점까지로 심한 자살생각은 15점 이상, 중한 자살생각은 12점~14점, 경함 자살생각은 9~11점, 정상은 9점 미만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SI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23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나.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이 고안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이민수와 이민규(1995)가 번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BDI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최근 2주 동안 느낀 우울감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총 21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3점까지로 심한 우울수준은 24점 이상, 중한 우울수준은 16~23점, 가벼운 우울수준 10~15점, 정상은 10점 미만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920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측정을 위하여 Van Orden, Witte, Gordon, Bender & Joiner(2008)가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한 The Interpersonal Need Questionnaire 12(INQ-12)를 조민호(2010)가 INQ-R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NQ-R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최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총 2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17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욕구가 많이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INQ-R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26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라. 음주심각성

음주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AUDIT를 김용석(1999)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AUDIT-K는 지난 1년 동안에 음주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알코올 의존, 유해음주, 위험음주를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까지로 알코올의존은 24점 이상, 유해음주는 20~23점, 위험음

주는 12~19점, 정상은 12점미만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31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마.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에게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동거가족, 월소득, 음주시작나이, 자살 시도횟수, 자살생각(지난 1년), 주위 자살한 사람, 다른 정신과 질환, 신체질환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성별은 남녀의 이분변수로, 연령과 음주시작나이, 자살시도 횟수는 직접 기입하게 하여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결혼상태와 동거가족은 범주변수로 측정하였고, 학력과 월소득은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자살생각(1년)과 다른 정신과질환, 신체질환은 유무의 이분변수로 측정하였고, 주위에 자살한 사람은 친구, 가족, 없음의 범주변수로 측정하였다.

###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해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였다.
- 넷째, 알코올 중독자의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통제변인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통제변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3세이며, 월소득은 50만원 미만인 62명(42.8%), 100만원~200만원 미만 36명(2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살시도 횟수는 1.59번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시도 횟수를

표 1. 연구대상자의 통제변인

특성	분류	빈도	백분율(%)
연령	29세 이하	3	2
	30~39세	11	7.3
	40~49세	49	32.5
	50~59세	63	41.7
	60세 이상	25	16.6
	M=50.32 SD=9.58		
월소득	50만원 미만	62	42.8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	10.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24.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4	9.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	7.6
	500만원 이상	7	4.8
자살시도 횟수	없음	79	60.3
	1번	21	16.0
	2번	14	10.7
	3번	12	9.2
	5번 이상	5	3.8
	M=1.59 SD=8.77		
음주 심각성	저위험 음주	12	7.9
	위험 음주	22	14.6
	유해 음주	30	19.9
	중독 음주	87	57.6
	M= 24.74 SD=8.20		

살펴보면, 1번 21명(16%), 2번 14명(10.7%), 3번 12명(9.2%) 등으로 나타났다. 음주심각성의 평균점수는 24.74점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 123명(81.5%), 여자는 28명(18.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81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40.0%), 미혼(28.0%), 이혼(23.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다수가 가족과 함께 거주(67.1%)하고 있었다.

음주를 시작한 나이는 10대 75명(49.7%), 20대 54명(35.8%)으로 조사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21.84세에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49명(34.0%)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살을 시도한 주위사람으로는 친구(19.3%)와 가족(10.7%)이 가장 많았다. 다른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32명(21.5%)이었고, 신체질환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56명(36.4%)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23	81.5
	여	28	18.5
학력	무학	2	1.4
	초졸	11	7.5
	중졸	22	15.0
	고졸	81	55.1
	대졸	27	18.4
	대학원졸 이상	4	2.7
결혼상태	미혼	42	28.0
	기혼	60	40.0
	별거	7	4.7
	이혼	35	23.3
	사별	3	2.0
	기타	3	2.0
동거가족	가족	100	67.1
	혼자	36	24.2
	기타	13	8.7

특성	분류	빈도	백분율(%)
음주시작 나이	19세 이하	75	49.7
	20~29세	54	35.8
	30~39세	12	7.9
	40세 이상	10	6.6
	M=21.84 SD=7.64		
자살생각 (지난1년)	예	49	34.0
	아니오	95	66.0
주위 자살한사람	없음	100	66.7
	친구	29	19.3
	가족	16	10.7
다른 정신과질환	예	32	21.5
	아니오	117	75.5
신체질환	예	56	36.4
	아니오	93	63.6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우울 평균점수는 16.67점이었고, 그중 임상적 우울 상태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104명(68.9%)이었다. 또한 자살생각의 평균점수는 8.14점이었고, 자살가능성이 있는 자살생각을 가진 알코올중독자는 62명(41.1%)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평균 점수는 91.51점이었다. 구체적인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우울	정상	47	0	9	4.72	2.83
	가벼운 우울 (10~15점)	34	10	15	12.71	1.73
	중한 우울 (16~23점)	32	16	23	18.75	2.48
	심한 우울 (24점 이상)	38	24	54	33.24	8.50
	합계	151	0	54	16.67	11.87
대인관계		151	41	164	91.51	23.52

변수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살 생각	정상	89	0	8	2.71	2.27
	경한 자살생각 (9~11점)	19	9	11	10.05	0.97
	중한 자살생각 (12~14점)	9	12	14	12.78	0.67
	심한 자살생각 (15점 이상)	34	15	30	20.06	4.16
	합계	151	0	30	8.14	7.64

###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자살시도횟수, 음주심각성, 대인관계, 우울은 자살생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령과 월소득은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계수와 VIF, Tolerance 값을 이용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상관관계 계수가 .80이상, Tolerance는 1이하, VIF는 10이하인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을 고려해야 한다. <표 4>를 살펴보듯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80 미만이고, Tolerance 값은 .647~.963, VIF는 1.039~1.54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령	월소득	자살 시도횟수	음주 심각성	대인관계	우울	자살 생각
연령	1						
월소득	-.089*	1					
자살 시도횟수	.059	-.120*	1				
음주 심각성	-.273**	-.280**	-.012	1			
대인관계	-.008	-.261**	.117*	.322***	1		
우울	-.034	-.288***	.141*	.285***	.553***	1	
자살 생각	-.102*	-.321***	.262**	.247**	.429***	.634***	1

\*p<.05, \*\*p<.01, \*\*\*p<.001.



#### 4.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대인관계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분석법에 따라 3변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월소득, 자살시도횟수, 음주심각성을 통제하였으며, 독립변수간의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2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인관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1의 F값은 1.255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9.8%였다. 모델1에서는 월소득( $\beta = -.235$ ), 자살시도횟수( $\beta = .200$ ), 대인관계( $\beta = .369$ )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대인관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델로 F값은 12.666로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2가 갖는 설명력은 32.5%였다. 모델2에서는 월소득( $\beta = .112$ ), 자살시도횟수( $\beta = -.076$ ), 음주심각성( $\beta = -.122$ ), 대인관계( $\beta = .482$ )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우울)와 종속변수(자살생각)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대인관계)를 확인하여 매개효과 검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모델3은 통제변수와 대인관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감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모델3의 F는 21.685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0.6% 이었다. 대인관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의 변화폭을 살펴보면 .369에서 우울 변수를 투입했을 때 .098로 낮아졌다. 또한 모델 1에서는 대인관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모델3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은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점수가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자살생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으며<sup>1)</sup>, 분석결과는 <표 6>을 살펴보듯이  $z = 4.54$ ( $p < .001$ )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 sobel test 식은  $z = ab / \sqrt{b^2 Sa^2 + a^2 Sb^2}$  로 a:비표준화계수, Sa: a의 표준오차 B: 비표준화계수, Sb: b의 표준오차로 여기서 Z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자살생각		우울		자살생각	
	b(SE)	$\beta$	b(SE)	$\beta$	b(SE)	$\beta$
상수	2.362		-5.229		4.337	
연령	-.064(.065)	-.080	-.037(.095)	-.031	-.050(.055)	-.062
월소득	-1.181(.413)**	-.235	-.838(.602)*	-.112	-.864(.349)*	-.172
자살시도 횟수	.170(.066)*	.200	.097(.096)*	.076	.134(.056)*	.157
음주심각성	.039(.078)	.043	.165(.114)*	.122	-.023(.066)	-.026
대인관계	.118(.027)***	.369	.230(.039)***	.482	.031(.025)	.098
우울					.378(.053)***	.562
Adjusted R <sup>2</sup>	.298		.325		.506	
F	11.255***		12.666***		21.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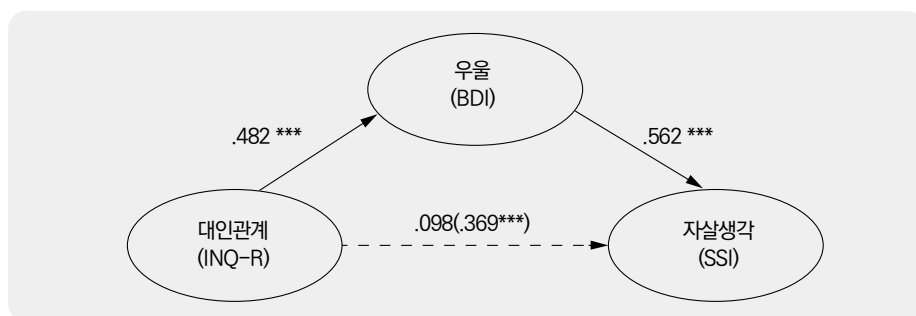
\*p<.05, \*\*p<.01, \*\*\*p<.001

표 6. Sobel test를 활용한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S.E)	Sobel-Z score
대인관계 → 우울	0.230	0.039	4.54490680*** (p=0.000)
우울 → 자살생각	0.378	0.053	

\*p<.05, \*\*p<.01, \*\*\*p<.001.

그림 2.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 V. 결론 및 고찰

알코올중독자는 자살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살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목적으로 알코올중독자 151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했었던 연구대상자는 49명(34.0%)인 반면, 자살가능성이 있는 자살생각을 가진 알코올중독자는 62명(41.1%)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자살생각의 평생 유병률 15.6%와 비교하면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이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둘째, 우리나라 성인의 자살시도율은 약 3%로 보고되는데(윤명숙, 201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자살시도횟수는 39.7%로 우리나라 성인 자살시도율보다 약 13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임상적 우울상태는 68.9%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의 평생 유병률인 6.7%(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넷째, 주요 변인인 우울, 대인관계, 월소득, 자살시도횟수, 음주심각성, 연령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우울은 알코올중독자의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자살생각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횟수가 일반 성인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유관기관들은 자살고위험군인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임상실천가들이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위험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음주 및 우울 등의 영향으로 충동적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중독자이 자살시도를 하였을 때 신속하게 사정-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사정-개입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실천가들에게 자살관련 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박민서·유영직, 2013).

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신보건사업에서 수립하지 못한 원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자살 상담 및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부족, 자살관련 연구의 부족,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박민서·유영직, 2013). 더불어 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2009~2013)을 살펴보면 중점 대상군(priority group)에 알코올중독자가 미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김정수·송인한, 2013).

둘째, 알코올중독자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시도횟수, 음주심각성, 연령, 월소득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우울과 대인관계는 자살생각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우울은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우울이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며, 나아가서는 대인관계와 우울, 자살을 좀 더 포괄적·연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입대안들이 요구된다. 즉, 대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훈련, 우울을 감소하기 위한 훈련, 음주를 거절할 수 있는 훈련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대인관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외래치료명령제가 확대되어야 하며,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알코올중독자들이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규태, 2011)

셋째,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보인 것처럼 좌절된 대인관계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우울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는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 지인 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임상실천가들의 개입과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과 같은 실천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임의표집을 통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6곳의 정신병원에서 자료조사가 이뤄졌고, 연구절차(참여의지가 있는 자, 설문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등)에 의해서 연구대상자를 제한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는 전체 알코올 중독자에게 일반화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더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요인을 살펴볼 수 없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반복성과 대상지역 및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자살관련 강화요인과 보호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충동성, 가족력, 입원횟수, 이중장애 등을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제3의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자살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 실정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박아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청주의료원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입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보건이며,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알코올 및 도박중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dkdltkqn@hanmail.net)

전종철은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알코올 및 니코틴 중독과 정신건강이며, 현재 청소년 흡연과 음주, 약물과 정신건강의 이중진단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schun@ewha.ac.kr)

## 참고문헌

---

- 강상경(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pp.67-100.
- 강은정, 이수형(2010). *자살의 원인과 대책 연구 :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경필, 송창진, 사공정규, 이광현(2004). 자살위험요인의 평가와 예측. *동국의학*, 11(1), pp.83-94.
- 권구영(2002). 우리나라 알코올중독 치료현황의 이해를 위한 기술적 연구. *사회복지리뷰*, 7, pp.77-110.
- 김갑숙, 전영숙(2012). 청소년 우울, 불안과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pp.903-913.
- 김광일(2002). *누구나 한번은 자살을 생각한다*, 파주: 내일을 여는 지식 사회. p.179-180
- 김보미, 유성은(2012).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조절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1(3), pp.731-748.
- 김선하, 김춘경(2009). 대인관계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5(4), pp.183-204.
- 김성이(2002). *약물중독총론*. 서울: 양서원.
- 김용석(1999). 국내외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해 한국성인의 알코올사용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7, p.78
- 김용해(2011). *현대사회와 자살*. 파주: 내일을 여는 지식, pp.15-19.
- 김은정(2013). *대인관계육구를 매개로 한 대인갈등과 청소년 자살사고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상담학과, 가톨릭대학교.
- 김정수, 송인한(2013). 자살예방 국가전략 비교 : WHO 프레임워크로 분석한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및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보건사회연구*, 33(1), pp.513-546.
- 김정수, 한상익, 김광수(1994). 주정중독의 재발에 대한 임상병인들의 영향. *신경정신의학*, 33(4), pp.817-824.
- 나기천(2009). *음주문제로 상담 4명 중 1명꼴 자살충동 시달린다*. 세계닷컴,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11/17/20091117004350.html>, 2013.  
11.25.
- 민성길(2005).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p.270
- 박경(2003).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 8(3), pp.581-593.
- 박규태(2011).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대구대학교.
- 박민서, 유명직(2013). 자살예방정책의 형성과정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12(2), pp.77-102.
- 박병금(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31, pp.207-235.
- 박송이, 채규만(2012). 우울취약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능동적, 회피 분산적 정서 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pp.349-369.
- 박현주(2006). 알코올중독 심각도에 따른 우울, 불안 및 사회적지지. 석사학위논문, 간호학과, 인제대학교.
- 보건복지부(2012).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OECD Health Data 2013. 서울: 경성문화사.
- 손애리(2010).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간의 관련성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7, pp.61-79.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pp1-19.
- 신종헌(2011). 일부지역사회주민의 자살행동 유병률과 관련 요인. 박사학위논문, 의학과, 충남대학교.
- 육성필(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 윤명숙(2011).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음주의 조절효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38, pp.113-140.
- 윤명숙, 김서현(2012). 대학생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족도의 매개

- 효과분석.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40(2), pp.5-32.
- 윤명숙, 김성혜, 채완순(2010). 노인의 음주 및 정신건강 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1), pp.27-44.
- 윤명숙, 최수연(2012).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시도경험.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40(4), pp.27-56.
- 윤현수(2000).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 이명은(1998). 입원한 알코올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의 효과성 연구 : 우울감과 지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 이민규, 이민수(2003). 한국 우울증척도의 개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2(4), pp.492-506.
- 이지민(2010).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pp.1271-1287.
- 이해국, 이보혜(2013). 4대 중독원인 및 중독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pp.30-42.
- 이현경, 노성훈(2011). 우리나라 성인의 문제음주와 우울 및 자살생각의 연관성.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2(1), pp.155-169.
- 정연경(2009).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담심리학과, 인천대학교.
- 전준희(2013). 자살위기 상담의 실제. 2013년 추계보수교육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성 확보를 통한 클라이언트 중심 실천 자료집. 서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pp.91-135.
- 제영묘(2004). 자살과 정신장애.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pp.3-10.
- 조민호(2010).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자살. 석사학위논문,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 지창현(2013). 한국의 자살실태분석 및 자살위험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분석: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제학과, 서강대학교
- 최은정(2013). 알코올중독자의 우울과 회복동기의 관계 : 사회적 지지와 AA 몰입의 다중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숭실대학교
- 추경진(2012). 청소년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과 절망감,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 하정미, 설연옥, 좌문경(2010).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pp.223-245.
- 한만봉(2011). *자살심리론*. 파주: 내일을 여는 지식 사회, pp.67-145 .
- 현용호, 남윤영, 김세현, 서신영, 육기환, 이만홍(2001). 한국인 우울증 환자의 대인관계 문제영역에 대한 연구. *정신병리학회*, 10(1), pp.64-70.
- 홍나미(2011). *부모학대와 또래 괴롭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 Alloy, L. B., Ahrens, A. H. (1987). Depression and pessimism for the future: Biased use of statistically relevant information in predictions for self versus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2), pp.366-378 .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1173-1182
- Berman, A. L., Jobes, D. A. (1991).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395-415
- Brady, J.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alcohol misuse and suicidal behaviour. *Alcohol and Alcoho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Medical Council on Alcoholism*, 41(5), pp473-478.
- Bryan, C. J., Morrow, C. E., Anestis, M. D., Joiner, T. E. (2010). A preliminary test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in a military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pp.347-350.
- Bryan, C. J., Clemans, T. A., Hernandez, A. (2012). Perceived burdensomeness, fearlessness of death, and suicidality among deployed military personn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pp.374-379.
- Cukrowicz, K. C., Cheavens, J. S., Van Orden, K. A., Ragain, R., Cook, R. L. (2011).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e ideation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6, pp. 331-338.
- Davidson, Wingate, Grant, Judah, Mills, C. L, LaRicka R., et al. (2011). Interpersonal suicide risk and ideation :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30(8), pp.842-855.

- Davidson, Wingate, Rasmussen, Slish, C. L., LaRicka R., Kathy A., et al. (2009). Hope as a predictor of interpersonal suicide risk.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5), pp.499-507.
- Freedenthal, Lamis, Osman, Kahlo, Gutierrez, S., Dorian A., et al. (2011).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12 in sampl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7(6), pp.609-623.
- Garza, M. J., Pettit, J. W. (2010). Perceived burdensomeness, familism,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exican women: Enhancing understanding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0, pp.561-573.
- Glen O., Gabbard, M. D. (2002).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3rd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이정태, 채영래(역)(2002), *역동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p.378.
- Hammen, C. I. (1991). The generation of stress in the course of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pp.555-561.
- Harlow, Newcomb, Bentler, L. L., Michael D., P. M.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pp.5-21.
- Harris, E. C., Barraclough, B. (1997). Suicide as an outcome for mental disorders. A meta-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 The Journal of Mental Science*, 170, pp.205-228.
- Harris, T. L., Molock, S. D. (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0(4), pp.341-353.
- Heriksson M. M., Aro, H. M., Marttunen, M. J., Heikkinen M. E., et al. (1993), Mental disorder and comorbidity in suicid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6), pp.935-940.
- Jahn, Cukrowicz, Linton, Prabhu, D. R., Kelly C., Kitten, et al.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o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 and suicide ide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older adults. *Aging*

- & *Mental Health*, 15(2), pp.214-220.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pp16-269.
- Joiner T. E, Van Orden, Witte, Selby, Ribeiro, Lewis, et al. (2009),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 -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3), pp.634-646.
- Joiner, T. E & Rudd, M. D. (2010). Negative attributional style for interpersonal event and the occurrence of severe interpersonal disruptions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2), pp.297-304.
- Kleiman E. M., Liu, R. T., Riskind J. H. (2014). Integrating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into the depression/suicide ideation relationship: a short-term prospective study. *Behavior Therapy*, 45(2), pp212-221
- Lamis, Malone, D. A., Patrick S. (2011). Alcohol-related problems and risk of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belongingness and burdensomenes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41(5), pp.543-553.
- O'Keefe, V. M., Wingate, L. R., Turker, R. P., Rhoades-Kerswill, S., Shish, M. L., Davidson, C. L. (2013). Interpersonal suicide risk for American Indians : Investigating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ultural Diversity Ethnic Minority Psychology*, September 16, pp.1-7.
- Pompili, M., Serafini, G., Innamorati, M., Dominici, G., Ferracuti, S., Kotzalidis, G. D., et al. (2010). Suicidal behavior and alcohol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7(4), pp.1392-1431.
- Roy, A. (2000). Relation of family history of suicide to suicide attempts in alcoholic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12), pp.2050-2051.
- Roy, A. (2003). Distal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r in alcoholics: Replications and new finding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7(3), pp.267-271.
- Sher, L. (2005). Alcoholism and suicidal behavior: A clinical overview.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3(1), pp.13-22.

Synder, C. R., Lopez, S. J.,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463-473.

Thompson, Mazza, Herting, Randell, Eggert, E. A., James J., et al. (2005). The mediating roles of anxiety, depression, and hopelessness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1), pp.14-34.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Joine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pp.575-600.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Joiner, T. E. (2008a).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76(1), pp.72-83.

Van Orden, K. A., Witte, T. K., James, L. M., Castro, Y., Gordon, K. H., Braithwaite, S. R., Joiner, T. E. Jr. (2008b).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varies across semesters: The mediating role of belongingn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 pp.427-435.

You S. G, Van Orden, K. A., Conner, K. R. (2011). Social connections and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5(1), pp.180-184.

Zhang, J., Zhao, S., Zhou, C. et al. (2013). Suicidal ideation and its correlates : testing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n chinese stud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7, pp.236-241.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uicide Ideation among Alcoholic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Park, A Reum**

(Ewha Womans University)

**Chun, Jong Serl**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uicide ideation among alcoholics. The study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151 patients hospitalized at six psychiatric hospita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r alcoholism or alcohol abuse. For data analysis, mediating effects were test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Baron&Kenny (1986) method.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icide attempt rate of the subjects was approximately 13 times higher than that of non-alcoholic adults, while the subjects' suicide ideation rate was about three times higher. Secondly,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umber of suicide attempts, alcohol problem, income, and age had direct influence on suicide ideation. Finally, the test results of mediating effects showed that depression had full mediating effect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uicide ide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practice implications for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uch as the need for educating and training practitioners capable of considering suicide risk of alcoholics, as well as the need for tailored intervention programs and their management systems for the high suicide risk group.

---

**Keywords:** Suicide Ideation,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